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는 살아가면서 대화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의사소통을 한다. 그리고 대화에서 파생되는 상호작용으로 상대에게 정보전달을 하거나 어떠한 행동을 유발시키기도 하며 상대방을 설득시키기도 한다. 즉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거나 연설을 할 때의 궁극적인 목적은 일방적이든 상호적이든 자신의 뜻이나 정보를 상대에게 전달하기 위함일 것이다. 자신이 원하는 메시지를 상대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우리는 정확한 발음으로 이야기하며 목소리의 높낮이를 변화시키거나 다양한 음색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이를 통해 듣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의 감정 상태나 그 사람이 중요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음악에서 음정 역시 이와 같은 관점에 전제를 두고 고찰해 봐야 할 것이다. 음악의 영역인 가창, 기악, 창작, 감상의 각 부분에서 음정은 기본적인 부분이며 또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기악 같은 경우 대부분의 악기는 음이 악기 내에 고정되어있기 때문에 정확한 음을 소리 내는 것에 중점을 두어 훈련하기 보다는 테크닉 부분에 좀 더 비중을 두어 훈련을 한다면 가창의 경우는 모든 사람이 가장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영역인데 반하여 자신의 몸이 악기이기 때문에 음이 다른 기악 악기처럼 고정되어 있지는 않다. 따라서 처음부터 자신이 가진 영역에 맞는 정확한 음정을 찾는 것이 기초가 되어 훈련을 하고 그 감을 익혀 연습한다면 가창은 누구나 할 수 있으며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음악을 가장 자연스

롭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는 활동이다. 따라서 가창활동은 음악적 성장을 이루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도 접근하기 쉬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코다이(Zoltan Kodaly, 1882~1967,헝가리)는 음악은 참여를 통해 경험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가장 자연스럽게 음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노래 부르기'라고 하였다. 그는 "모든 사람은 음악의 축복을 받고 태어났다-중략-노래를 부르고 싶은 것은 모든 정상적인 사람에게 있어서 자연스런 욕구이다. 그리고 그 노래 부르는 능력은 훌륭한 음악작품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어려운 다 성부의 악곡 연주를 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향상될 수 있다"1)고 하여 가창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독일의 음악 사회학자 아도르노는 노래 부르는 것(가창)은 인간의 기본적 행동의 하나이며 대부분의 인간이 향유하고 있는 문화이고, 음악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라고 이야기 하였다. 또한 가창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목소리로 하는 감정표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며 자기발전의 도구로서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2)

즉 가창에서 정확한 음정으로 노래를 부르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노래자체가 지니는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며, 더 나아가 상대에게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감정을 전달할 수 있게 되고 듣는 이에게 감동을 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가창을 어렸을 때부터 신체적 성장 시기에 맞춘 음악적 성장 특징을 이해하여 그들에게 적합한 음악체험-정확한 음을 듣고 소리 내는 훈련, 그리고 음과 음사이의 높낮이(음정)를 이해하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음악교육이 될 것이며 그 체험은 그 유아들의 음악적 능력의 발달에 결정적인 작용을 하게 된다.3) 이에 따라 가창

1) 이홍수. (1990).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 세광음악출판사. p331~333

2) 이홍수. (1990).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 세광음악출판사. p193

에 대한 부담과 공포로부터 해방되어 음악을 한층 더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다.

음악교육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조기교육이 중요시 되고 있다. 코다이는 예술 교육에 관한 한 국제회의에서 음악 조기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오르프(Orff.1895~1982)또한 음악의 체험은 어릴 때 시작되어야 한다면서 되도록이면 이른 시기에 음악지도를 시작할 것을 강조⁴⁾하고 있다. 고든(Gordon)은 만 9세까지 제공되는 음악적 경험이 매우 중요함을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 제시하고 있으며 "9세 정도가 될 때까지 공식 또는 비공식적인 음악적 환경에 따라 변하며 그 후에는 고정된다."⁵⁾고 하였다. 게다가 음악 능력은 다른 능력에 비해 발견되는 시기가 빠르기 때문에 보다 이른 시기에 아동들이 음악을 통하여 잠재된 능력을 최대한 발달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음악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홍수(1992)는 "음악적 성장 특징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적합한 음악체험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면 그 체험은 그 유아들의 음악적 능력의 발달에 결정적인 작용을 하게 된다."고 언급하였다. 유아들의 인지발달과 음악적 성장의 관계를 살펴보면 음의 고저감각을 개발시키기 위한 교육은 일반적으로 유아기(전조작기)라 일컬어지는 5~7세 정도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유아기는 음악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 음의 높낮이에 더 예민하고 청각능력이 눈에 띄게 발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개발된 이러한 음의 고저감각은 성인이 되어서 까지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아기의 유아들이 습득하고 경험하는 음악적 활동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⁶⁾

여러 학자들이 강조하고, 현재까지 사용되어지고 있는 효과적인 음악 교육

3) 이홍수. (1992). 느낌과 통찰의 음악교육. 세광음악출판사. p102~104

4) 이홍수. (1990).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 세광출판사. p332.335

5) 현경실. (2004). 한국 음악적성검사. 학지사. p24

6) 박유미. (2004). 음악심리학의 이해. 음악춘추사

의 방법으로 신체를 이용하는 방법과 시각적인 효과를 이용하는 방법을 들 수 있는데 헝가리의 유명한 음악교육학자인 코다이(Z. Kodaly)의 손 계명 교수법은 신체를 이용한 방법으로 가락을 공간속에서 표현한다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음의 높낮이를 손의 위치와 모양의 관계를 통한 손기호의 상하로 표시하여 음높이를 시각화할 뿐만 아니라 행동화함으로써 유아들의 음악학습에서 신체표현과 시각적인 효과를 강조하였다. 또한 “미국의 교육학자 브루너(Jerome Bruner)는 작동적(enactive), 영상적(iconic), 상징적(symbolic)단계로 명명되는 인지과정의 세 가지 표현방식에 초점을 두고 있다. 초기의 어린이의 행동은 행위형태를 통해 나타나며 어린이는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 작동적 양식을 사용한다. 그리고 차츰 성장하여 영상이나 도해의 표현방식, 즉 영상적 표현을 통해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게 되며 최종 단계에 가서야 상징을 다루고 추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된다.”⁷⁾ “동작과 음악을 연결시키는 음악교육을 주장한 달크로즈(E.J. Dalcroze)는 음악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달시켜 주기 위해서는 ‘음악’과 ‘신체표현’을 결합하여 지도해야 한다고 하였다.”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음악교육 방법으로서 신체표현과 시각적 표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우리가 음악교육을 받을 때 신체표현과 시각적 표현을 제외하거나 분리하여 음악교육에 대해 논하기는 어렵지만, 그 중 유아기 때 거의 결정지어지는 정확한 음정 조절능력을 길러주는데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과연 어떤 학습방법인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함에 있다.

앞서 말했듯이 정확한 음정은 음악에 있어 아주 중요한 부분이며 대부분 유아기에 형성되어지기 때문에 유아기 음정교육이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의 목적은 인지발달에 따른 음악적 성장을 고려한

7) 이홍수. (1990).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 세광음악출판사 p74

8) 권덕원·석문주. (2005). 음악교육의 기초 .교육과학사.

음감지도의 필요성과 방법을 인식하고 더 효과적인 음감지도 방안을 모색하여 유아 음악 수업에 보탬이 되고자함에 있다.

2. 연구문제

첫째. 유아음악 교육에서 신체표현과 시각적 표현방법 중 음감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떤 학습방법인가?

둘째. 유아음악 교육에서 신체표현과 시각적 표현방법 중 연령에 따른 효율적인 학습 방법에 차이가 있는가?

셋째. 유아음악 교육에서 연령에 따른 음악성취도에 차이가 있는가?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자는 서울시 종로구 s유치원에서 6세 23명, 7세 24명, 총 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6, 7세 유아 모두에 이 결과가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데는 무리가 따를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자는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임의로 두 그룹으로 나누어 수업하였으며 따라서 결과는 사람마다의 차이를 무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셋째. 음의 고저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 시각적 효과는 그림악보만을 이용하였고, 신체표현은 몸 계명만을 이용한다.

넷째. 신체표현 수업에서 몸 계명에 사용되는 참고 그림자료는 여러 자료들 중 유아들의 관심도와 흥미 유발적 측면을 고려하고, 무릎에서 시작하여 머리 위로 손을 뻗는 것까지 표현하는 신체범위 이용이 유아들이 표현하기에 적정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선정하였다.

다섯째. 신체표현 방법 중 몸 계명 수업은 음의 높낮이에 따라 손의 위치로 표현되는 수업이기 때문에 손의 위치인 시각적인 부분을 배제할 수 없으나 신체표현에 더 중점을 둔다.

4. 용어 정의

1) 음감

음악에서 음감이라는 용어의 정의⁹⁾를 살펴보면 음에 대한 감수성. 음의 높이, 강도, 길이, 음색 외에 리듬, 선율, 화성 따위 악곡의 구성 요소에 대한 감수성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이지만 본 논문에서 언급하는 음감은 좁은 의미로 ‘음정을 느끼는 감각’만을 이야기 한다. 음감에는 음을 듣고 즉석에서 절대적인 음높이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인 절대음감과 다른 음과의 비교를 통해서 음높이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인 상대음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상대음감만을 다룰 것이기 때문에 상대음감만을 정의하도록 한다.

9) 네이버 사전

2) 상대음감

어떤 음(音)을 듣고 다른 음과의 비교를 통해서만 음높이를 판별할 수 있는 청각능력으로 상대음감은 사람의 머릿속에 음의 절대적 기준이 되는 장치가 들어 있지 않아 외부의 도움, 외부 기준장치의 도움을 받아야만 음정을 알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즉 기준이 되는 음을 듣고 나중의 음을 듣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도'음을 들려주고 음을 알려준 후에 '솔'을 쳐주면 먼저 쳐주었던 음을 기준으로 높낮이를 계산하여 '솔'음을 맞추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렇게 음정을 알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상대음감의 소유자이며 가창에서는 이동도법으로 노래 부르기에 해당한다.

3) 이동도법

이동도법은 조성에 따라 으뜸음의 위치가 달라지며 그 으뜸음을 기준으로 하여 정해지는 음계의 각 음을 계이름으로 노래 부르는 방법이다. 이 경우 계이름은 조성속에서의 기능을 나타내며 절대 음높이(absolute pitch)가 아니라 특정 조성안의 다른 음들과의 상대적인 관련 속에서 파악된다.

II. 이론적 배경

이 장에서는 인지발달과 음악적 성장, 유아기 때 음감훈련의 중요성, 신체표현과 시각적인 방법을 이용한 음악교육 효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1. 인지발달과 음악적 성장

교육이란 인간의 행동을 계획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개인의 성장발달을 촉진하는 일이다. 음악교육 역시 계획된 의도아래 적절한 체험과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 개개인의 음악적인 성장과 인간적인 성장을 돕는 일이다.

인간의 성장과 학습에 관한 이론은 학자들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다. 그리고 성장과 학습에 관련되는 이 복잡한 문제들을 명확하게 과학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아직도 그 길이 멀다.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다소 그 시기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태어나서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공통된 단계를 거쳐 성장한다는 것과 개개인의 성장은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개 그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¹⁾

이에 “인간은 누구나 다소 그 시기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태어나서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공통된 단계를 거쳐 성장한다는 것”에 Piaget가 제시한 인간의 인지발달 단계에 따른 음악적 성장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1) 이흥수. (1990).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 세광음악출판사. p69

1) Piaget의 인지발달 단계에 따른 음악적 성장²⁾

(1) 감각 운동기

출생에서 약 2세까지의 단계를 감각운동기라고 한다. 운동신경, 근 감각 등과 함께 아기의 청감각도 발달하기 시작하며, 청감각은 단순한 '청력'의 차원이 아닌 여러 가지 음 현상의 특징을 분별하는 청각적 내면작용을 뜻한다.

아기는 생후 2개월경부터 사람의 소리, 특히 엄마의 소리에 반응하며 5개월을 전후하여 음악을 듣고 느낌을 몸짓으로 나타내기 시작한다. 따라서 이 시기부터 청력의 발달 뿐 만 아니라 아기의 청감각의 발달에 관심을 가지고 음악적 환경을 제공한다면 어린이의 음악적 감각의 바탕이 마련될 수 있다.

(2) 전조작기

약 2세부터 7세 까지의 인지발달 단계를 전조작기라고 한다. 전조작기 동안에는 인지발달과 함께 어린이의 음악적 능력도 급속히 성장한다. 소리의 썸여림, 음높이, 음길이 등을 정확하게 구별하고 흐름 결 및 가락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들려준 소리를 정확하게 따라 낼 수 있게 된다. 음악적 능력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청감각과 반응력이 뚜렷이 발달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 시기에는 노래 따라 부르기, 청음 놀이하기, 유리드믹스를 통한 활동으로 청감각과 반응력을 발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3) 구체적 조작기

약 7세부터 11세까지의 단계를 구체적 조작기라고 한다. 구체적 조작기 동

2) 이홍수. (1990).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 세광음악출판사. p77~80

안에는 인지적으로 뚜렷한 발달을 보일 뿐 아니라 감정의 면에서도 폭 넓게 성숙하기 시작한다. 음악적 개념이 현저하게 개발된다. 7세경에는 화음을 지각하기 시작하고 8,9세에는 청 감각이 일생 중 절정을 이루는 시기이기 때문에 청각기능이 음 현상에 대해 가장 예민하게 작용한다. 악보 읽기와 쓰기, 악기배우기 등의 음악 체험이 중요하다.

(4) 형식적 조작기

약 11세부터 15세까지의 인지발달 단계를 형식적 조작기라고 한다. 이 기간에 청소년들이 예술 음악을 통하여 감정적, 지적으로 깊은 감동의 순간들을 체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학생들 스스로의 마음의 노래가 존중되고, 악곡의 의미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감상과 연주활동을 통하여 청소년들로 하여금 보다 높은 수준의 음악 문화권에 속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2. 유아기 때 음감훈련의 중요성

음악 감각력은 음악적 능력을 형성하는 여러 요인 중 가장 기초이며 중요한 능력이다. 이러한 음감은 여러 학자들이 주장하듯 유아기 때 급속한 발달을 이루게 되며 이 시기에 발달 된 능력은 성인이 되어서 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유아기는 음악적 관점에서 볼 때 외부로부터 접근되는 음악 자극에 매우 강렬한 반응을 보이며 동시에 가장 뚜렷하게 몰입하는 행위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유아음악교육에서 음을 듣고 정확한 음정을 구별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학

습할 때 ‘과연 잘 받아들이고 있는 걸까?’ 라는 의문이 든다. 그러나 유아기에는 거의 천재적이다 싶을 만큼 눈부신 흡인력을 발휘한다.

달크로즈에 의하면 음악교육은 유아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능력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유아가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데 있다고 보고, 시기는 이르면 이룰수록 좋다고 보았다. 또한 코다이는 어린이는 취학연령이 되기 전에 이미 음악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학교에서 음악교육을 시작하는 것은 너무 늦다고 보았다.³⁾ 따라서 취학 전 시기인 유아기 아동의 성장적 측면을 고려했을 때, 5~7세에서는 유아기 때 발달하게 되는 거의 모든 능력이 최고조에 이르게 된다. 청각각의 능력이 뚜렷하게 나타나며 인지발달과 함께 사회적, 정서적, 음악적 발달이 급속도로 발달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음악적 발달을 살펴보면 개인차가 있긴 하나 자신의 음역이 넓어지는 시기이므로 좀 더 정확한 리듬과 높낮이로 노래 부를 수 있다. 그리고 음과 음 사이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하기 시작하고 동시에 여러 소리가 울리는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된다.⁴⁾ 이 시기에 정확한 음정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유아기 아동의 성장적 측면을 고려한 적절한 음악 교육이므로 효과적이며 유아가 성인이 되어서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유아 음정교육은 아이들에게 즐거운 행위로 접근 되어야 할 것이다. 음악을 자연스럽게 그리고 음악에 대해 반응하는 잠재적 능력을 더욱 촉진시킴과 동시에 흥미롭게 학습에 임함으로써 유아의 상상력, 자기 존중감 및 자기 표현력은 물론 다른 학습이나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교육활동의 하나가 될 수 있으므로 유아교육과정에서 음악활동은 더욱더 광범위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⁵⁾

3) 김영혜. (2006). 유아기의 유아음악교육방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4) 김지영. (2004). 유아를 위한 청음지도 교육방법 연구. 석사학위논문

3. 신체표현과 시각적인 방법을 이용한 음악교육 효과

여러 학자들이 강조하고, 현재까지 사용되어지고 있는 효과적인 음악 교육의 방법으로 신체를 이용하는 방법과 시각적인 효과를 이용하는 방법을 들 수 있는데 헝가리의 유명한 음악교육학자인 코다이(Z. Kodaly)의 손 계명 교수법은 신체를 이용한 방법으로 가락을 공간속에서 표현한다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음의 높낮이를 손의 위치와 모양의 관계를 통한 손기호의 상하로 표시하여 음높이를 시각화할 뿐만 아니라 행동화함으로써 유아들의 음악학습에서 신체표현과 시각적인 효과를 강조하였다.

또한 “미국의 교육학자 브루너(Jerome Bruner)는 작동적(enactive), 영상적(iconic), 상징적(symbolic)단계로 명명되는 인지과정의 세 가지 표현방식에 초점을 두고 있다. 초기의 어린이의 행동은 행위형태를 통해 나타나며 어린이는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 작동적 양식을 사용한다. 그리고 차츰 성장하여 영상이나 도해의 표현방식, 즉 영상적 표현을 통해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게 되며 최종 단계에 가서야 상징을 다루고 추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된다.“⁶⁾

우리가 몸으로 직접 움직여서 배운 기술들-걷기, 자전거타기, 수영, 운전-은 한번 숙달되면 한동안 사용되지 않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배우지 않고 그대로 재연할 수 있지만 상징으로 배운 지식들은 잠시 사용하지 않으면 곧잘 잊어버려 다시 배워야하는 경우가 많다. 신체를 통한 음악학습은 눈과 귀, 머리, 손과 팔의 종합적인 활동을 통해 각 음과 악보의 상징성을 자동적으로 인지하도록 이끌고, 또한 음에 대한 감각을 예민하게 한다.

독일의 작곡가이자 음악교육가인 오르프(Carl Orff, 1895~1982,독일)의

5) 이병헌 외 3명. (1996). 유아음악교육. 동문사. p11

6) 이흥수. (1990).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 세광음악출판사. p74

교수방법의 특징은 아동의 언어와 신체동작을 음악적으로 적용시키는데 있다. 음악은 원초적인 것에서부터 학습 되어져야 한다는 원초적 음악(Elemental Music)을 강조하였다. 원초적이라는 것은 노래(언어), 악기(음악), 춤(신체동작)이 동시에 연주되어야 하는 것이며 노래와 말의 중간정도 되는 언어를 사용하고 악기와 신체표현을 사용하는 음악 학습이 바람직하다고 주장⁷⁾하였다. 즉 음악은 신체 동작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적용해야만 음악을 더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아들이 처음에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오선 악보대신에 그림악보를 사용하는 것은 아주 효과적인 음악학습방법이다. 그림악보를 이용하여 음악을 지도하는 방법은 개념지도뿐만 아니라 음악학습 활동에 활용해도 아주 효과적이다.⁸⁾ 호반(Hoban 1937)이 이야기하는 교육의 목적은 지적경험을 일반화시키는데 있으며 이를 위해서 교재의 시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시각화된 교재는 생생한 경험을 제공하며, 학습내용을 명확하게 재생하여 추상적인 개념의 이해를 돕고 복잡한 자료를 단순화 시켜준다고 했다. 올젠(Olsen)은 시각자료는 제시되는 주제나 교재에 대한 학습자의 흥미를 증진시켜 결국 그들의 동기를 자극시킬 수 있으며 따라서 학습자는 주의집중을 하게 되고 그 주의를 지속시키며 학습을 하게 된다고 언급하였다.⁹⁾

7) 권덕원·석문주. (2005). 음악교육의 기초. 교육과학사. p 219

8) 조선일보. (2005. 8).

9) 연정용. (2005). 영상적 표현양식을 적용한 음악개념 지도의 효과. 석사학위논문

4. 선행연구 고찰

본 논문에서는 신체표현과 시각적 표현의 학습방법 중 유아의 음감 형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학습방법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신체표현과 시각적 표현을 각각 이용한 논문은 있으나, 두 가지 학습방법을 비교한 논문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유아의 음감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방법을 연구한 논문을 찾아 요약하였다.

안상규는 그의 논문 “코다이의 교수법을 활용한 음감능력 향상에 관한 연구”¹⁰⁾에서 코다이의 교수법을 적용한 집단과 음악과 교사용 지도서에 따른 지도법을 적용한 집단 간의 음감능력 향상 변화를 검증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코다이의 계명창, 이동도법, 손 계명을 이용한 교수법을 활용하여 리듬과 음정의 능력을 향상시켜 음감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업지도안을 설계하고 교사용 지도서에 따른 수업지도안을 실제 음악 수업에 적용하였다. 안산지역 초등학교 5학년 2개 학급을 각각 40명씩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선정하였다. 80명을 대상으로 11차시에 걸친 실험으로 진행되었으며 SPSSWIN을 이용하여 변량분석(t-test)을 실시하였다.

리듬검사 결과 실험반과 비교반의 차는 1.37점이었는데 두 반의 평균점수에 대한 유의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t=5.347$ 로서 0.1%수준에서 유의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정검사 결과는 실험반과 비교반이 각각 36.85와 29.82점으로 그 차는 7.03이며 음정검사 평균점수는 실험반이 비교반 아동들보다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 두 평균점수에 대한 유의성 검증 결과 $t=3.93$ 으로서 5%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실험반과 비교반의 검

10) 안상규. (2004). 코다이의 교수법을 활용한 음감능력 향상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증결과 코다이 교수법을 활용한 음감능력 향상에 있어서 교사용 지도서에 따른 지도법을 활용한 학습방법을 실시한 집단보다 학습효과가 크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임은혜는 그의 논문 “유아 가창지도의 전통적 교수법과 코다이 교수법의 비교연구”¹¹⁾에서 코다이의 여러 가지 영역의 교수법 중에서도 음감에 도움이 되는 손 기호와 리듬감에 도움이 되는 말 리듬을 활용하여 유아들에게 음감과 리듬감 향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하여 효과적인 유아지도 방법을 모색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서울시 2개의 구립 어린이집 6세와 7세 4학급의 80명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나누어 10차시로 구성된 학습지도안을 가지고 실제 수업을 통해 학습하였다. 음악의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리듬감과 음감의 향상도를 알아보기 위해 코다이의 손 기호와 리듬읽기를 활용하였다. 음정을 익히는데 각각의 음계에 해당하는 손 기호 들을 익힌 후, 노래와 손 기호를 함께 해 봄으로써 음의 높낮이를 직접 느껴보게 하였으며, 리듬을 익히는데 말 리듬을 사용하고 그림악보를 직접 읽고 그것을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게임을 통해 학습하였다. T-test 실시한 결과 유아 음악 학습에서 코다이 교수법으로 수업 활동을 실시한 실험집단이 기존 전통적 교수법으로 수업을 실시한 통제집단보다 음정과 리듬감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코다이의 손 기호와 리듬말을 통하여 제작된 지도안이 아이들에게 음감과 리듬감을 익히는데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성별의 차이에서는 여자 유아가 음감 리듬감을 향상시키는데 통계적으로 남아보다 효과가 있음이 검증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코다

11) 임은혜. (2006). 유아 가창지도의 전통적 교수법과 코다이 교수법의 비교연구. 석사학위논문

이의 교수법이 음감과 리듬감의 향상에 효과적이라고 밝혀진바 음악에서의 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코다이 교수법의 활용을 모색하는데 있다.

유혜승은 그의 논문 “5-6세 유아를 위한 효율적인 음감지도 방법-윤표구조 이론을 통한 음의 고저감각 개발을 중심으로”¹²⁾에서 유아기 때 음의 고저감각을 개발시키기 위한 교육으로 5-6세 유아의 음의 고저 감각을 개발시키기 위한 지도요령을 모색하고 그 지도 요령을 실제 음감 지도에 활용함으로써 효율적인 음감지도안의 계획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신체표현, 음고 변화에 따라 움직임 바꾸기, 몸 계명, 그림악보, 음악 듣고 선율에 따라 그림으로 표현해 보기, 막대악보를 이용한 듣기, 즉흥연주의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피아노를 배운 경험이 없는 유아 5~6세 4명을 대상으로 10차시에 걸친 수업으로 각 차시 당 수업은 40분으로 진행되었다. 수업 계획안을 실제 음악지도에 적용해 본 결과 5~6세 유아들은 음악이나 노래를 들을 때 특히 음형이나 윤표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즉 유아의 음고 지각은 전체 음고의 윤표를 대략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따라서 음의 흐름에 중점을 두어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다. 또한 연구자가 제시한 올라가기, 내려가기, 무지개모양, 물결모양, 수평모양의 5가지 음고 윤표 가운데 차례로 올라가기와 수평모양에 대한 인식이 잘 되었다. 마지막으로 유아들은 신체표현, 놀이, 노래, 듣기, 악보읽기, 창작, 즉흥연주의 7가지 활동영역 가운데 신체표현을 가장 잘 했고 듣기, 창작, 즉흥연주에 대하여는 어려워했다.

권영화는 그의 논문 “코다이 이론에 의한 효과적인 유아가창지도 교수법

12) 유혜승. (1996). 5-6세 유아를 위한 효율적인 음감지도 방법-윤표구조 이론을 통한 음의 고저감각 개발을 중심으로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

연구-음감 및 리듬을 중심으로”¹³⁾에서 코다이 교수법에 대하여 음악이 유아의 삶과 관계됨으로 인해 끼치는 영향과 의미에 대하여 교육부의 방침을 고려하여 이상적인 유아 가장지도에서 음감과 리듬중심의 교수-학습 모형을 만들어보고, 실제 수업을 통하여 전후 차이점을 분석하여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서울시 관인 S유치원과 관인 M음악학원 유아 6,7세 6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10차시에 걸친 학습지도안을 가지고 코다이 교수법을 통해 실제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마지막에 사후평가를 실시하였다. 학습 지도안의 주 내용은 음악의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리듬감과 음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코다이 손 기호와 리듬읽기를 활용하였으며, 제재곡의 선율에 필요한 손 기호를 익힌 후, 노래와 손 기호를 함께 해봄으로써 시각적으로 음의 높낮이를 직접 느끼게 하였다. 리듬을 익히기 위해 말 리듬과 그림 악보를 활용하였으며, 흥미도를 높이고 확실한 습득을 위해 게임을 활용하였다.

그 결과 유아 음악학습에서 코다이 교수법으로 수업활동을 실시한 전보다 후에 음감과 리듬감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다이의 손 기호와 리듬 말을 통하여 제작된 지도안이 아이들에게 음감과 리듬감을 느끼는데 보다 쉽고 흥미를 유발하고 효과적이라고 말 할 수 있다. 리듬감은 사전검사 시 음감에 비해 점수가 높았으며 10차시의 수업을 거친 후 사후검사 역시 리듬감 음감 모두 향상되었으나, 역시 리듬감의 점수가 더 높게 평가되었다. 이 같은 결과를 볼 때 정확한 음감 향상을 위해서는 보다 장기간의 교육지도가 필요하며, 코다이의 교수법이 효과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13) 권영화. (2007). 코다이 이론에 의한 효과적인 유아가장지도 교수법 연구 -음감 및 리듬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위의 선행연구를 고찰해 본 결과 유아 음악수업에서 유아들의 음감향상을 위한 방법으로 코다이의 계명창, 이동도법, 손 계명과 리듬읽기, 그림악보가 주로 사용되었다. 또한 전통적인 교수법에 따른 음악수업과 코다이의 여러 교수방법, 그림악보를 이용한 수업을 비교한 것으로 계명창, 이동도법, 손 계명과 리듬읽기, 그림악보가 유아들의 음감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본 논문은 유아들의 음악수업에서 특히 음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수업 방법을 연구하기 위하여, 음감향상에 도움이 되었던 여러 가지 수업방법 중 신체표현과 시각적인 표현을 비교하였다. 신체표현 방법은 몸 계명을 이용하고, 시각적인 방법은 그림악보를 이용하여 신체표현과 시각적인 표현 중 유아들의 음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수업방법을 새롭게 연구하였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음정훈련에 관한 것이며, 음정에 대한 정확성은 대부분 유아기에 형성되어지기 때문에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S유치원 유아 6세 24명, 7세 24명, 전체 대상자 48명을 대상으로 한다. 그 중 남아 29명, 여아 19명으로 남아의 인원이 더 많았다. 본 연구를 위해 6세 유아를 임의로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그림악보, 또 다른 한 그룹은 몸 계명으로 수업한다. 7세 유아도 임의로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그림악보, 또 다른 한 그룹은 몸 계명으로 수업한다. 두 그룹 모두 본 연구자가 직접 수업을 실시하였다.

실험기간은 2007년 6월 5일부터 2007년 7월 18일까지 주2회 실시하며 학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주별 수업시간이나 요일은 변경가능성이 있다. 12차시의 수업으로 진행되며 각 차시 당 수업시간은 30분으로 진행된다. 실험기간 내에 전체 4곡의 노래를 배웠으며, 노래 선곡은 유치원에서 5년 동안 일했던 유치원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선곡하였으며 그 동안 유치원에서 다루어 보지 않았던 곡으로 선정하였다. 12차시의 수업을 마친 후 학습했던 제재곡 4곡 중 아이들이 가장 즐겁게 불렀던 한 곡과 배운 곡 중 가장 난이도가 있었던 한 곡, 총 2곡을 미리 선정하여 계명으로 부르기를 통해 성취도 평가를 실시하며 노래 부르는 모습을 캠코더로 촬영한다.

6세와 7세의 연령에 따라 음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친 학습방법을 도출하고, 연령에 따른 큰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대상 아동들의 연령 및 성별에 따른 구성과 연구일정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 아동들의 연령 및 성별에 따른 구성과 연구일정

		성별. 인원	기간	수업일	수업시간
몸 계명	7세 A	남아 7명	(2007. 06. 05 ~ 2007. 07.18)	화, 목	09:20 ~ 09:50
		여아 4명			
	6세 B	남아 7명	(2007.06.05 ~ 2007. 07.18)	화, 목	09:50 ~ 10:20
		여아 3명			
그림 악보	7세 A'	남아 8명	(2007.06.05 ~ 2007. 07.18)	화, 목	10:20 ~ 10:50
		여아 5명			
	6세 B'	남아 7명	(2007.06.05 ~ 2007. 07.18)	화, 목	10:50 ~ 11:20
		여아 7명			

2. 연구도구

신체표현을 이용한 몸 계명과 시각적 표현을 이용한 그림악보 수업에서 각 그룹 별 수업 지도안과 본 연구자가 개발한 가창을 통한 음악 성취도 검사가 사용된다.

1) 몸 계명

몸 계명은 음악의 여러 요소 중 하나인 음정을 신체의 각 부분에 대입하여 신체의 각 위치의 높고 낮음에 따라 음의 높낮이를 이해하고 표현함으로써 신체를 이용하여 음정 감을 익히는 학습방법으로 신체의 각 위치에 따라 음을 대입시켜 무릎에서 머리 쪽으로 올라갈수록 땅으로부터의 위치는 점점 높아지는 것을 이해시키고, 음(계이름)을 노래하면서 손으로 신체의 각 위치에 해당되는 부분을 차례로 짚어 올라가 봄으로서 손의 위치가 높아질수록 음도 높아지는 것을 유아들에게 쉽게 이해시키는 방법이다. 몸 계명에 사용되는 참고 그림 자료는 본 연구자가 찾아보았던 여러 자료 중 유아들의 관심도와 흥미 유발적 측면을 고려하고, 발에서 시작하는 신체이용보다 무릎에서 시작하여 머리 위로 손을 뻗는 것까지 표현하는 신체범위 이용이 유아들이 표현하기에 적정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선정하였다.

<그림 1>과 같이 신체의 각 위치에 해당하는 음을 도-무릎, 레-허벅지, 미-엉덩이, 파-허리, 솔-가슴, 라-어깨, 시-머리, 높은 도-머리 위로 이를 통해, 제재곡을 신체 부위의 높낮이에 따라 음을 표현한다.

<그림 1> 신체의 각 위치에 따른 음 나타내는 몸 계명 14)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2) 그림악보

그림악보는 음악의 여러 요소 중 음정을 오선악보 대신 아이들이 접하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모형에 대입하여 봄으로서 음의 높고 낮음을 시각적인 표현방법을 이용하여 쉽게 파악하여 음정을 익히게 하는 학습방법이다. 그림악보는 시각적인 부분만을 이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눈으로만 보고 특별한 생각을 요하지 않아도 높고 낮음이 분명한 것

14) <http://blog.naver.com/0185669973/70008148757> 출처: 동아카드컴

을 제시하여야 한다.

유아들에게 높고 낮음을 설명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몸에 착용하는 물건 중 머리에 쓰는 모자는 높고, 발에 신는 양말은 낮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물들을 살펴보면 새는 높은 곳에 있고 강아지는 낮은 곳에 있다. 유아들에게 ‘새 그림’을 보여주면 본 연구자가 의도하는 대로 혼돈을 일으키지 않고 바로 높은 곳을 생각하고, 높은 곳은 높은 소리 (음)로 연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범위가 정해지지 않고 막연히 높은 곳과 낮은 곳이라는 말은 각 음에 해당하는 높고 낮음을 분명하게 설명할 방법이 부족하였다.

또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림악보의 방법으로 도-빨강, 레-주황, 미-노랑, 파-초록, 솔-파랑, 라-남색, 시-보라색의 각 음에 해당하는 7가지 색을 이용하여 제재곡의 음에 해당하는 색으로 높낮이를 다르게 하여 제재곡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도 좋은 방법이지만 본 연구자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그림악보는 유아들이 이미 접해봤을 수도 있고, 또한 각 음에 해당하는 색을 기억하여야 하기 때문에 더 번거롭고 복잡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각 음에 맞게 높낮이를 다르게 하여 제재곡을 표현하되 한 가지 색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다. 이렇게 하면 색을 기억하고 또 그 색을 음에 대입해야하는 번거로움도 없어 적합하다고 생각하였다.

낮에 보면 잘 보이지 않지만, 저녁에 아파트에 불이 켜져 있는 모습을 보면 한 가지 색으로 표현되어있고, 멀리서도 높고 낮음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아파트 모양의 기본 판에 각 음에 해당하는 유리창에 색을 달리하여 제재곡을 표현하기로 하였다. 현대 사회인 요즘 주변을 둘러보면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아파트이다. 연구대상인 유아들도 아파트를 주변에

서 많이 보고 아파트를 보면 높고 낮음을 쉽게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 모형을 그림악보의 기본 판으로 선정하였다.

8층짜리 아파트 모형을 제시하고 각 층에 따라 음을 대입시켜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땅으로부터의 위치는 점점 높아지고, 아래로 내려올수록 점점 낮아진다는 개념을 유아들에게 다시 한 번 이해시키고, 음(계이름)을 노래하면서 아파트 각 층에 해당되는 부분에 색을 표현하여 제시함으로써 아파트 층의 위치가 높아질수록 음도 높아지는 것을 유아들에게 쉽게 이해시키는 방법이다.

<그림2> 시각적 효과를 이용한 아파트 모형의 음 익히기 학습자료



<그림 2-1>시각적 효과를 이용한 제재곡<개나리>그림악보

<그림 2>와 같이 도-아파트 1층, 레-2층, 미-3층, 파-4층, 솔-5층, 라-6층, 시-7층, 높은 도-8층으로 이를 통해, 층의 높낮이에 따라 음을 표현한다. 유아들의 실제 수업에 사용되는 그림악보는 <그림 2-1>과 같다.

제재곡의 그림악보 아파트 모형과 각 음에 해당하는 유리창 색은 처음에는 본 연구자가 만들었으며, 그 이후에는 수업에 열심히 참여한 유아들에게 좋아하는 색을 물어서 그 색을 이용한 그림악보를 만들어 유아들의 수업 참여도를 높였다.

아파트 모형의 관에 그 음에 해당하는 유리창 부분에 색을 표현하여 제재곡에 자주 나오는 8분 음표(♪)를 유리창 한 칸으로 표현하고, 4분 음표(♩)는 유리창 두 칸을 붙여서 표현한다. 음의 길이에 따라 유리창의 칸 수를 늘려 표현하여 그림악보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음의 길이 관계를 파악하게 하고 음의 고저를 눈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3) 학습 지도안

(1) 주별 제재곡과 주요 활동

2007년 6월 5일부터 2007년 7월 18일까지 12차시의 수업이 진행되며, 한 그룹은 신체표현을 이용한 몸 계명 수업이고 다른 한 그룹은 시각적인 표현을 이용한 그림악보 수업이다. 실험기간 내에 전체 4곡의 곡을 배웠으며 노래선곡은 유치원에서 5년 동안 일했던 유치원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선곡하였으며 그 동안 유치원에서 다루어 보지 않았던 곡으로 선정하였다. <김성균 동요곡집>에서 2곡을 발췌하였고, 그 외 다른 유아 동요 곡 집에서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2곡을 선정하였다.

주별 제재곡과 주요 활동은 다음<표 2>와 같다.

<표 2> 주별 제재곡과 주요 활동

	제재곡	수업 내용	
		6세, 7세 몸 계명 그룹	6세, 7세 그림악보 그룹
1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체표현에 따라 신체 각 위치에 따른 그림 보면서 신체표현. ·친구의 신체 부위에 계이름 붙이기 -신체 이용한 계이름 익히기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각적인 표현을 이용하여 그림악보 모형 보면서 각 층에 따른 계이름 익히기 ·두 음 제시하고 음정 익히기 -시각적으로 계이름 익히기 학습
2차시 3차시	개나리 (음정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 레, 미, 파, 솔, 몸 계명 다시 확인 ·제재곡의 리듬패턴을 정해서 레, 파를 이용하여 인사하기 ·4분 음표와 8분 음표 구분 ·계이름 짝짝이 판에 빠진 계이름 찾아서 붙이기 ·몸 계명으로 제재곡 부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림악보 보면서 계이름 익히기 ·제재곡의 리듬패턴을 정해서 레, 파를 이용하여 인사하기 (음정훈련) ·4분 음표와 8분 음표 구분 ·그림악보 보고 제재곡 부르기
4차시 5차시	릿 자 로 끝 나 는 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리’자로 끝나는 세음절의 단어 이야기하기 ·제재곡의 음정에서 도약 부분 음정 미리 익혀보기 ·가사 바뀌서 불러보기 ·계이름 짝짝이 판에 빠진 계이름 찾아서 붙이기 ·몸 계명으로 제재곡 익히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리’자로 끝나는 세음절의 단어 이야기하기 ·제재곡의 음정에서 도약 부분 음정 미리 익혀보기 ·가사 바뀌서 불러보기 ·그림악보 원판에 짝짝이 이용하여 음정 찾아서 붙이기 게임 ·그림악보 보고 제재곡 익히기
6차시 7차시 8차시	뽕 (색깔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단한 발성법과 바른 자세 지도 ·몸 계명으로 제재곡 익히기 ·점4분 음표, 16분 음표 익히기 ·음표와 쉼표 구분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단한 발성법과 바른 자세 지도 ·그림악보 보고 제재곡 익히기 ·점4분 음표, 16분 음표 익히기 ·음표와 쉼표 구분하기

9차시 10차시 11차시	여름방학	·발성법과 바른 자세 지도 ·제재곡의 음정에서 도약 부분 음정 미리 익혀보기 ·몸 계명으로 제재곡 익히기 ·게이름 짝짝이 판에 빠진 게이름 찾아서 붙이기	·발성법과 바른 자세 지도 ·제재곡의 음정에서 도약 부분 음정 미리 익혀보기 ·그림악보 보고 제재곡 익히기 ·그림악보 왼판에 짝짝이 이용하여 음정 찾아서 붙이기 게임
12차시	여름방학 릿 자 로 끝 나 는 말	-다음시간 성취도 평가 대비 총 정리 ·발성법과 바른 자세 지도 ·테스트 할 제재곡의 음정에서 도약 부분 음정 미리 체크하고 몸 계명으로 제재곡 불러보기	-다음시간 성취도 평가 대비 총 정리 ·발성법과 바른 자세 지도 ·테스트 할 제재곡의 음정에서 도약 부분 음정 미리 체크하고 그림악보 보면서 제재곡 불러보기
12차시 수업 후		·제재곡 ‘여름방학’과 ‘릿 자로 끝나는 말’ 성취도 평가 -캠코더 촬영	·제재곡 ‘여름방학’과 ‘릿 자로 끝나는 말’ 성취도 평가 -캠코더 촬영

(2) 학습 지도안의 예

몸 계명과 그림악보의 수업 지도안의 차이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전체 12차시 수업 중 평가 곡 중 한 곡인 '릿자로 끝나는 말'의 1차시와 2차시 수업지도안을 <표 3>, <표 4>와 <표 5>,<표 6>에 제시하였다.

<표 3> '릿 자로 끝나는 말' 몸 계명 1차시 수업 지도안

제재곡	릿 자로 끝나는 말은	학습형태	몸 계명 수업	
본시주제	도약음정 익히기	차시	1/2	
학습목표	제재곡에 사용된 음정과 리듬을 알고, 제재곡을 부를 수 있다.			
학습단계	교수-학습활동		시 간 (분)	자료 및 유의점
	교사활동	학생활동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이들과 인사하기 ·몸 계명 그림 제시하며, CM 스케일을 피아노로 들려준다. -다 같이 계이름으로 음을 소리 내면서 몸 계명으로 표현해 볼까요? ·지난시간에 배웠던 제재곡 몸 계명으로 표현해보기 ·오늘 배울 곡은 제목이 뭐예요? -그렇다면 '리'자로 끝나는 세음절의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 다같이 이야기 해 볼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녕하세요~ ·다 같이 제자리에서 일어나서 교사가 피아노로 들려주는 CM스케일을 들으며 다 같이 계이름으로 음을 소리 내면서 몸 계명으로 표현해보기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곡 몸 계명으로 표현해보기 ·릿자로 끝나는 말이요 ·개구리, 개나리, 도토리, 해파리, 코끼리, 너구리, 잠자리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몸 계명 꼬마 그림 ·피아노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재곡에 사용 된 중요 리듬과 음정 미리 배워보기 -오늘 배울 곡은 '도,레,미,파,솔과 높은 도'가 한 번 나오는 곡이에요. 		1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찍찍이 판에 계이름만 적어서 제시 ·피아노로 반주

	<p>·도약하는 음 이해하기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높은 도'를 '솔'에서 어떻게 소리 내야 할까요? -몸 계명으로 어떻게 표현해야하는지 어떤 친구가 먼저 해볼까요?</p> <p>·제재곡을 계명만 적어서 학생들에게 보여주기 -오늘 우리가 배운 곡 계이름을 보고 우리 다같이 몸 계명으로 표현해 볼까요? ·학생들과 함께 몸 계명으로 표현해보기</p> <p>·피아노를 연주하며 정확한 음정으로 시범창 하며,2마디씩 따라 부르게 한다.</p>	<p>·이렇게요~~</p> <p>·모든 학생들이 열심히 표현해 본다.</p> <p>·찍찍이 판에 붙은 계이름을 보고 몸 계명으로 표현 해보기</p> <p>·교사의 시범창을 듣고 2마디씩 따라 부른다.</p>		<p>를 하며, 정확한 음정으로 시범창 한다.</p>
정리	<p>·오늘 배운 제재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교사의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 몸 계명으로 표현해보기 ·마지막으로 도약음을 다시 한 번 몸 계명으로 표현하게 한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배운 곡 다시 한 번 불러보고 누가 잘 기억하는지 빠진 부분 채워서 부르기 게임</p>		5분	

<표 4> '릿 자로 끝나는 말' 몸 계명 2차시 수업 지도안

제재곡	릿 자로 끝나는 말은	학습형태	몸 계명 수업	
본시주제	제재곡 익히기	차시	2/2	
학습목표	제재곡을 가사를 바꾸어 부르고, 빠진 부분을 채워가며 노래 부를 수 있다.			
학습단계	교수-학습활동		시 간 (분)	자료 및 유의점
	교사활동	학생활동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이들과 인사하기 ·몸 계명 그림 제시하며, CM스케일을 피아노로 들려준다. ·다 같이 계이름으로 음을 소리 내면서 몸 계명으로 표현해 볼까요? ·지난시간에 배웠던 '릿 자로 끝나는 말'을 몸 계명으로 표현해 볼까요. ·그런데 우리 '술'에서 '높'은 '도'를 어떻게 소리 냈었는지 기억하는 친구가 있을까요? ·다같이 몸 계명으로 표현 해 볼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녕하세요. ·다 같이 제자리에서 일어나서 교사가 피아노로 들려주는 CM스케일을 들으며 다 같이 계이름으로 음을 소리 내면서 몸 계명으로 표현해보기 ·지난 시간에 배웠던 '릿 자로 끝나는 말' 도 약진행 주의하며 계명으로 큰소리로 노래하면서 몸 계명으로 표현해보기 	10분	·피아노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재곡을 계명만 적어서 학생들에게 보여주기 -우리가 저번시간에 배웠던 곡이에요. 계이름을 		15분	·제재곡의 계명만 제시한 짝짝이 판

	<p>보고 우리 다같이 몸 계명으로 표현해 볼 거예요~</p> <p>·제재곡을 교사의 반주에 맞추어 계명창하면서 몸 계명으로 표현해보기</p> <p>·제재곡을 가사로 불러보기</p> <p>-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리'자로 끝나는 말 3음절의 단어가 뭐가 있었죠? 그럼 이 노래에 있는 가사 대신 우리 친구들이 생각한 단어로 바꿔 불러볼 거예요~</p> <p>·찍찍이 판을 이용하여 교사가 먼저 계이름 몇 개를 뺀 뒤 빈칸에 빠진 음 찾기 게임</p> <p>-한명씩 나와서 몸 계명 하면서 계이름으로 노래 불러보고 찍찍이 판에 빠진 계이름 찾아서 보여보기</p>	<p>·피아노 반주를 들으면서 계명창하고, 몸 계명으로 표현하기</p> <p>·개구리, 개나리, 도토리, 해파리, 코끼리, 너구리, 잠자리</p> <p>·네~~좋아요~</p> <p>·몸 계명 하면서 계이름으로 노래 부르고, 빠진 음 찾기 게임</p>		<p>·학생들이 생각한 단어 적힌 카드</p>
정리	<p>·제재곡 처음부터 끝까지 교사의 반주에 맞추어 다 같이 몸 계명 하면서 계명창하기</p> <p>·다음 제재곡 소개</p>	<p>·다 같이 몸 계명 하면서 계명창하기</p>	5분	·피아노

<표 5> '릿 자로 끝나는 말' 그림악보 1차시 수업지도안

제재곡	릿 자로 끝나는 말은	학습형태	그림악보 수업	
본시주제	도약음정 익히기	차시	1/2	
학습목표	제재곡에 사용된 음정과 리듬을 알고, 제재곡을 부를 수 있다.			
학습단계	교수 - 학습활동		시간(분)	자료 및 유의점
	교사활동	학생활동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이들과 인사하기 ·그림악보 모형 제시하며, CM스케일을 피아노로 들려준다. -다 같이 게이름으로 음을 소리내볼까요? ·아파트 모형의 각 층에 따른 음 다시 한번 확인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녕하세요~ ·다 같이 아파트모형판을 보면서 교사가 피아노로 들려주는 CM스케일을 들으며 게이름으로 음을 소리내보기 	10분	·게이름 아파트 모형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림악보 보면서 지난시간에 배웠던 제재곡 게이름으로 불러보기 ·오늘 배울 곡은 제목이 뭐예요? -그렇다면 '리'자로 끝나는 세음절의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 다같이 이야기해 볼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곡 그림악보 보면서 불러보기 ·'릿 자로 끝나는 말'이 ·개나리, 개구리, 잠자리, 도토리, 해파리, 똥파리 	15분	·제재곡의 그림악보

	<p>파,솔과 높은 도'가 한 번 나오는 곡이에요.</p> <p>-아파트 모형을 제시하며 '도'와 '미' 두 칸에 색을 칠한다. '도'와 '미'는 어떻게 소리 내야 할까요?</p> <p>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솔'에서 '높은 도'를 어떻게 소리 내야 할까요?</p> <p>어떻게 소리 내야 하는지 어떤 친구가 먼저 해볼까요?</p> <p>·제재곡의 그림악보를 학생들에게 보여주기</p> <p>-오늘 우리가 배울 곡 그림악보예요. '릿 자로 끝나는 말' 아파트를 보고 우리 다 같이 계이름으로 불러 볼까요~</p> <p>·학생들과 함께 처음부터 천천히 그림악보를 같이 본다.</p> <p>·피아노를 연주하며 정확한 음정으로 시범창 하며, 2마디씩 따라 부르게 한다.</p>	<p>·이렇게요~~</p> <p>·모든 학생들이 열심히 표현해 본다.</p> <p>·제재곡의 그림악보를 보며 천천히 처음부터 음을 소리내본다.</p> <p>·교사의 시범창을 듣고 2마디씩 따라 부른다.</p> <p>·그림악보 보고 계명으로 불러보기</p>		<p>·피아노</p>
정리	·오늘 배운 제재곡을 그림악보를 보며 처음부터 끝까지		5분	

	<p>교사의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 계명창 하기</p> <p>·마지막으로 도약음정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p> <p>·다음 시간에는 오늘 배운 곡 다시 한 번 불러보고 누가 잘 기억하는지 빠진 부분 채워서 부르기 게임</p>			
--	--	--	--	--

<표 6> '릿 자로 끝나는 말' 그림악보 2차시 수업지도안

제재곡	릿 자로 끝나는 말	학습형태	그림악보 수업	
본시주제	제재곡 익히기	차시	2/2	
학습목표	제재곡을 가사를 바꾸어 부르고, 빠진 부분을 채워가며 노래 부를 수 있다.			
학습단계	교수-학습활동		시간(분)	자료 및 유의점
	교사활동	학생활동		
도입	<p>·아이들과 인사하기</p> <p>·아파트 그림 모형 제시하며, CM스케일을 피아노로 들려준다.</p> <p>-아파트 모형을 보고 다같이 각 층에 따라 계이름으로 음을 소리 내 볼까요?</p> <p>·아파트 모형의 각 층에 따른 음 다시 한번 확인하기</p> <p>·지난시간에 배웠던 '릿 자로 끝나는 말'에 나오는 뛰는 음을 다시 한번 소리 내 볼까요. 그런데 우리 '술'에서 '높은 도'를 어떻게 소리 냈는지 기억하는 친구가 있을까요?</p> <p>-우리 다같이 그림악보 보면서 저번시간에 배웠던 곡을 불러 볼까요~</p>	<p>·안녕하세요~</p> <p>·다 같이 아파트모형판을 보면서 교사가 피아노로 들려주는 CM스케일을 들으며 계이름으로 음을 소리내보기</p> <p>·교사의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곡 그림악보 보면서 불러보기</p>	10분	<p>·아파트 그림 모형</p> <p>·제재곡의 그림악보</p> <p>·피아노</p>

<p>전개</p>	<p>·제재곡을 계명만 적어서 학생들에게 보여주기 -우리가 저번시간에 배웠던 곡이에요. 그림악보를 보고 우리 다 같이 계이름으로 불러 볼 꺼예요~ ·그림악보를 보며 제재곡을 교사의 반주에 맞추어 계명창하기</p> <p>·제재곡을 가사로 불러보기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리'자로 끝나는 말 3음절의 단어가 뭐가 있었죠? 그럼 이 노래에 있는 가사 대신 우리 친구들이 생각한 단어로 바꿔 불러 볼 꺼예요~</p> <p>·그림악보를 먼저 다시 한번 확인할 시간을 주고 짹짹이 판을 이용하여 교사가 먼저 계이름 몇 개를 뺀 뒤 빈칸에 빠진 음 찾기 게임 -10개 셀 동안 그림악보 보고 이제 선생님이 아무 것도 없는 새 아파트를 가지고 옮겨주세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그림악보를 채우는 거예요.</p>	<p>·교사의 피아노 반주르 들으며, 그림악보를 보며 정확한 음정으로 노래 부르기</p> <p>·제재곡을 가사로 불러보기 ·개나리, 개구리, 잠자리, 도토리, 해파리, 똥파리 ·3음절로 나오는 단어대신 이야기했던 단어로 바꿔 불러보기</p> <p>·한명씩 나와서 계명창 하면서 짹짹이 판에 빠진 계이름 찾아서 붙여보기</p>	<p>15분</p>	<p>·저 번 시간에 이야기 했던 단어 단어카드로 만들어서 준비</p> <p>·아파트 모형 원판에 짹짹이 붙여서 준비</p>
-----------	--	---	------------	---

	-한명씩 나와서 계명창하면서 짹짹이 판에 빠진 계이름 찾아서 붙여보기			
정리	·그림악보를 보며 교사의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 제 재곡 처음부터 끝까지 계명과 가사로 부르며 마무리 ·다음시간에 배울 제재곡 소개		5분	·오늘 제일 열심히 수업에 참여한 학생을 한명 정해서 그 학생이 원하는 색으로 다음 그림악보 만들기

<그림 3> 몸 계명 수업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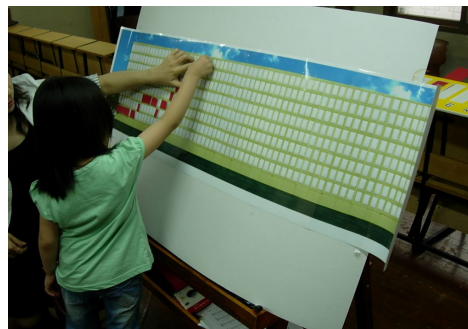
<그림 4> 몸 계명- 짹짹이 붙이기 게임



<그림 5> 그림악보 수업 모습



<그림 6> 그림악보 완성하기 게임



4) 음악 성취도 검사

이 장에서는 연구 집단의 가창 성취도를 검사하기 위하여 본 연구자가 개발한 가창 성취도 검사의 평가기준 개발과정과 최종적인 평가기준을 수록하였다.

개발된 가창 성취도 검사는 음정만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하였다.

(1) 평가도구 개발과정

본 연구자가 이 논문에서 평가하고자 한 것은 두 가지 다른 학습방법에 따른 음정의 정확성 부분이며 따라서 음악의 이해 영역에서 가락부분만을 평가하고자 한다. 음악의 평가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여러 방법이 사용되어지고 있다. 본 연구자는 조금 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평가기준을 만들어 보았다.

두 가지 학습방법을 사용하여 수업하였지만 두 가지 모두 음악교육에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학습방법이기 때문에 마지막 수업하면서 까지 두 그룹이 눈에 띄는 차이가 나지 않았다. 그래서 평가기준을 더 세밀하게 작성해야했다.

처음 만든 평가기준은 <표 7>처럼 제재곡을 어느 정도 노래하였냐에 따라 5점 만점에서 점수를 주는 방식이었다. 음정이 대체적으로 정확하였으면 5점, 2-3군데 제외하고 음정이 정확하였으면 4점, 4-5군데 제외하고 음정이 정확하였으면 3점, 6-7군데 정도의 음정이 불안정하였으면 2점, 악곡 전체적으로 음정이 불안하였으면 1점을 주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기에는 ‘대체적’이라는 용어와 음 하나하나를 군데로 볼 것인가 마디를 군데로 볼 것인가에 대한 ‘군데’라는 용어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두 번째 평가기준을 생각해보았다.

<표 7> 첫 번째 평가기준

5점	음정이 대체적으로 정확하다.
4점	2-3군데 제외하고 음정이 정확하다.
3점	4-5군데 제외하고 음정이 정확하다.
2점	6-7군데 정도의 음정이 불안정하다.
1점	악곡 전체적으로 음정이 불안하다.

두 번째 평가 기준은 <표 8>처럼 첫 번째 평가기준의 ‘대체적’이라는 용어와 ‘군데’라는 용어의 정의를 보완하여 90% 이상 정확하였으면 5점, 70~90% 정도 정확하였으면 4점, 50~70% 정도 정확하였으면 3점, 30~50% 정도 정확하였으면 2점, ‘무슨 노래인지 잘 모르겠다.’ 일 경우 1점을 주는 방식으로 채점한다. 역시 제재곡의 성취 정도에 따라 점수를 주는 방식이다.

<표 8> 두 번째 평가기준

5점	90% 이상 정확하였다.
4점	70~90% 정도 정확하였다.

3점	50~70% 정도 정확하였다.
2점	30~50% 정도 정확하였다.
1점	무슨 노래인지 잘 모르겠다.

세 번째 세운 평가기준은 제재곡을 어느 정도 성취 하였나 전체적으로 보는 방식이 아닌 도약과 순차 진행하는 것에 세밀하게 관점을 맞춘 것이다. 가락의 평가기준인 도약, 순차 진행하는 가락의 음정이 정확한가의 기준에 따라 제재곡을 분석해본 결과 제재곡 ‘여름방학’은 순차 진행하는 가락과 3도 도약 음정이 대부분이었으며 4도 도약 음정이 한 번, 8도 도약하는 음정이 한 번 나왔다. 이에 따라 3도 도약 음정이 정확하다(2/3이상 정확하였으면 정확했다고 평가), 4도 도약음정이 정확하다(5-6마디), 8도 도약음정이 정확하다(2-3마디), 순차로 진행하는 음정이 정확하였다(2/3이상 정확하였으면 정확했다고 평가), 전체적으로 선율의 흐름을 알 수 있다로 가락에 따른 다섯 가지 하위요소를 제시하여 다섯 가지 모두 만족하였으면 5점 만점으로 한 가지 하위요소가 부족할 때마다 1점씩 감점해나가는 방식으로 채점을 한다<표 9>.

평가기준 <표 9-1>은 세 번째 평가기준인<표 9>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한 방법으로 10가지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를 모두 세어 각 문항 당 1점으로 계산하여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을 내는 방식으로 한다.

<표 9> 제재곡 '여름방학'의 세 번째 평가기준

a	3도 도약 음정이 정확하다. (2/3이상 정확하였으면 정확했다고 평가)
b	4도 도약음정이 정확하다.(5-6마디)
c	8도 도약음정이 정확하다.(2-3마디)
d	순차로 진행하는 음정이 정확하였다. (2/3이상 정확하였으면 정확했다고 평가)
e	전체적으로 선율의 흐름을 알 수 있다.
총 점	

<표 9-1> 제재곡 '여름방학'의 세 번째 평가기준 심화

a	처음부터 끝까지 불렀다.
b	도약음정을 제대로 불렀다. (2/3이상 맞을 경우 제대로 불렀다고 본다.)
c	순차 진행하는 음을 제대로 불렀다. (2/3이상 맞을 경우 제대로 불렀다고 본다.)
d	높은 도를 제대로 불렀다.(3번째 마디)
e	높은 도에서 솔을 제대로 불렀다.
f	솔에서 미를 제대로 불렀다.
g	높은 도를 제대로 불렀다.(13번째 마디)
h	솔에서 레를 제대로 불렀다.
i	미에서 도를 제대로 불렀다.
j	중심음 감이 있다.
총 점	

또한 가락의 평가기준인 도약, 순차 진행하는 가락의 음정이 정확한가의 기준에 따라 제재곡을 분석해본 결과 제재곡 '릿 자로 끝나는 말'은 순차 진행하는 가락이 대부분이었으며, 3도 도약 음정이 두 번, 4도 도약 음정이 두 번, 5도 도약하는 음정이 한 번 나왔다. 이에 따라 3도 도약 음정이 정확하다(5~6, 6마디), 4도 도약음정이 정확하다(4~5, 5마디), 5도 도약음정이 정확하다(6~7마디), 순차로 진행하는 음정이 정확하였다(2/3이상 정확하였으면 정확했다고 평가), 전체적으로 선율의 흐름을 알 수 있다로 가락에 따른 다섯 가지 하위요소를 제시하여 다섯 가지 모두 만족하였으면 5점 만점으로 한 가지 하위요소가 부족할 때마다 1점씩 감점해나가는 방식으로 채점을 한다.<표 10>.

평가기준 <표 10-1>은 세 번째 평가기준인<표 10>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한 방법으로 9가지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를 모두 세어 각 문항 당 1점으로 계산하여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을 내는 방식으로 한다.

<표 10> 제재곡 '릿 자로 끝나는 말' 세 번째 평가기준

a	3도 도약 음정이 정확하다.(5~6, 6마디)
b	4도 도약음정이 정확하다.(4~5, 5마디)
c	5도 도약음정이 정확하다.(6~7마디)
d	순차로 진행하는 음정이 정확하였다. (2/3이상 정확하였으면 정확했다고 평가)
e	전체적으로 선율의 흐름을 알 수 있다.
총 점	

<표 10-1> 제재곡 '릿 자로 끝나는 말' 세 번째 평가기준 심화

a	처음부터 끝까지 불렀다.
b	도약음정을 제대로 불렀다. (2/3이상 맞을 경우 제대로 불렀다고 본다.)
c	순차 진행하는 음을 제대로 불렀다. (2/3이상 맞을 경우 제대로 불렀다고 본다.)
d	높은 도를 제대로 불렀다.(3번째 마디)
e	높은 도에서 솔을 제대로 불렀다.
f	솔에서 미를 제대로 불렀다.
g	미에서 도를 제대로 불렀다.
h	도에서 솔을 제대로 불렀다.
i	중심음 감이 있다.
총 점	

그러나 세 번째 평가기준은 너무 상세하여 채점자가 이 기준들을 모두 인지하고 채점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서 다시 네 번째 평가기준을 작성하였다.

네 번째 평가기준은 순차진행, 도약진행, 음정감 부분으로 나누어 평가기준을 설정하였으며, 순차진행은 선율의 음들이 순서대로 배열되는 것, 이러한 선율진행을 순차진행이라 정의하여 채점하고, 도약진행은 연속적인 음들 사이의 간격이 넓은 선율진행을 도약진행이라 정의하고, 2도 이상의 음의上行, 하행진행을 채점하며, 음정감은 중심음감(Tonal center)을 나타내는 말로 제재곡의 조성감을 파악하고 부른 정도. 즉 조의 중심, 으뜸음을 향해 진행하는 화성감각을 파악한다.

각 부분 당 상(上), 중(中), 하(下) 세 단계로 나누어 상은 3점, 중은 2점, 하는 1점으로 각 부분 당 3점 만점으로 점수를 배정한 후 각 영역 당 점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설정하였다. 이와 같이 세 영역으로 나누어 각 영역 당 채점하는 방법의 평가기준은 제재곡의 순차진행, 도약진행, 그리고 넓게 봐서 음정감까지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채점기준이 그리 복잡하지 않아 채점자들이 인지하고 평가하기 적당하다고 생각되었다. 이러한 평가기준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1> 최종 평가기준

순차진행	상(上)
	중(中)
	하(下)
도약진행	상(上)
	중(中)
	하(下)
음정감	상(上)
	중(中)
	하(下)

순차진행 - 선율의 음들이 순서대로 배열되는 것, 이러한 선율진행을 순차진행이라고 정의하여 채점한다. 예)도-레, 미-파 의 진행

도약진행 - 연속적인 음들 사이의 간격이 넓은 선율진행을 도약진행이라 정의하고, 2도 이상의 음의 상행, 하행진행을 채점한다. 예) 도-미, 솔-도

음정감 - 중심음감(Tonal center)을 나타내는 말로 제재곡의 조성감을 파악하고 부른 정도. 즉 조의 중심, 으뜸음을 향해 진행하는 화성감각을 파악.

3. 연구절차

본 연구자는 몸 계명과 그림악보 중 6,7세 유아들의 음감형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학습방법을 살펴보기 위하여 음악 가창 성취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검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쳤다.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S유치원 유아 6세 24명, 7세 24명, 전체 대상자 48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6세 남자 아이의 한 명 결석으로 <표 12>와 같이 유아 6세 23명, 7세 24명 총 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표 12>평가 실시일과 실제 평가 참여 대상의 연령 및 성별에 따른 구성

평가 실시일				2007. 07. 20			
몸 계명				그림 악보			
7세		6세		7세		6세	
남아	여아	남아	여아	남아	여아	남아	여아
7명	4명	7명	3명	8명	5명	6명	7명

남아 28명, 여아 19명으로 남아의 인원이 더 많았다. 6세와 7세 유아를 임의로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그림악보, 또 다른 한 그룹은 몸 계명으로 수업하며, 두 그룹 모두 본 연구자가 직접 수업을 실시하였다. 실험 기간은 2007년 6월 5일부터 2007년 7월 18일까지 총 12차시의 수업으로 진행되었으며, 실험 기간 내에 학습한 노래는 유치원에서 5년 동안 일했던 유치원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그 동안 유치원에서 다루어 보지 않았던 곡으로 선곡하였으며 전체 4곡의 노래를 배웠다. 12차시의 수업을 마친 후 학습

했던 제재곡 4곡 중 아이들이 가장 즐겁게 불렀던 한 곡과 배운 곡 중 가장 난이도가 있었던 한 곡, 총 2곡을 선정하여 계명으로 부르기를 통해 2007년 7월 20일 하루에 걸쳐 성취도 평가를 실시하며 노래 부르는 모습을 캠코더로 촬영하였다.

검사는 본 연구자와 유아들의 생활지도를 담당해 주시던 선생님 한 분의 도움을 받아 함께 실시하였으며 총 소요 시간은 90분 정도 소요되었다. 동영상은 담은 캠코더로 촬영하였으며 따로 준비된 실습실에서 다른 유아의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한 명씩 들어와서 제재곡 2곡을 연속으로 노래하는 테스트를 실시하였으며 각각 기회는 1번씩 준다. 몸 계명 팀 7세, 6세 그 다음 그림악보 팀 7세, 6세 순서로 진행되었다. 제재곡 '여름방학'을 먼저 부르고 그 다음 '뿔 자로 끝나는 말'을 노래하였으며 노래 부르는 장면을 캠코더로 촬영하였다. 연구대상에게 첫 음을 피아노로 들려주고 그 음을 듣고 제재곡을 불러보라고 하였더니 평상시처럼 반주가 붙지 않은 상태여서 대부분의 유아들이 잘 하지 못해서 그냥 마음대로 첫 음을 잡아서 시작하라고 하였다. 어차피 이동도법으로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잡은 첫 음에 의해 음의 관계를 파악하면 되기 때문이다. 제재곡은 모두 게이름으로 노래하였다. 테스트하기 이전에 유아들에게 열심히 노래 부르는 유아에게는 사탕을 준다고 하여 모두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였다.

음감을 검사할 수 있는 평가지를 본 연구자가 제작하고, 평가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음악을 전공하고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인 3명을 평가자로 선정하여 평가하였다. 음악 성취도 점수는 본 연구자가 세운 평가기준에 따라 채점자3명이 모든 유아들의 녹음을 들으며 채점하였다. 점수는 엑셀로 입력하고, 평균, 표준편차, 채점자간의 신뢰도, T-test를 알아보았다.

4. 연구 분석 방법

음악성취도 검사의 평균과 표준편차, 유의도를 알아보았으며, 그룹별과 연령별 비교는 T-test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자가 제작한 음악성취도 평가지는 순차진행, 도약진행, 음정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점수가 각 3점씩 총 9점 만점이다. 본 연구자가 세운 평가기준에 따라 채점자3명이 유아들의 녹음을 들으며 채점하였다.

음악성취도 점수는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내고, 세 명의 평가자가 채점하므로 평가자간의 채점이 얼마나 신뢰성 있으며 일관성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채점자간의 신뢰도를 크론바흐 알파(Cronbach Alpha) 계수로 알아보았다.

IV. 연구 결과 및 해석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음악성취도 검사의 분석결과

1) 음악성취도 검사의 채점자 신뢰도

두 명이상의 채점자가 독립적으로 채점하여 그 결과가 일치되는 정도를 채점자간의 신뢰도라고 한다. 본 연구에서 가창을 통한 음악성취도 검사는 3명의 채점자가 채점했으므로 채점자간의 신뢰도를 크론바흐 알파(Cronbach Alpha)계수로 알아보았다. 검사의 신뢰도는 1에 가까울수록 검사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

3명의 측정자간의 음악 성취도의 채점자 전체 신뢰도 결과는 .948이라는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정도의 신뢰도이면 채점자들이 음악 성취가 높은 학생에게는 높은 점수를 주고 낮은 음악성취를 보인 학생에게는 낮은 점수를 주는, 한마디로 일관성 있게 채점했다고 볼 수 있다.

음악성취도의 채점자 신뢰도는 <표 13>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13> 음악성취도의 채점자 신뢰도

	순차 진행	도약 진행	음정감	전체
여름방학	.792	.766	.750	.913
릿 자로 끝나는 말	.729	.843	.824	.924
전 체	.829	.861	.887	.948

2) 음악성취도 검사의 평균과 표준편차

제재곡 ‘여름방학’과 ‘릿 자로 끝나는 말’의 음악 성취도 검사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몸 계명과 그림악보의 그룹 총점수를 비교하였다. 몸 계명 그룹과 그림악보 그룹의 6세, 7세 각 연령에 따른 음악 성취도 검사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6세와 7세 연령에 따른 두 그룹에 따른 음악 성취도 검사의 평균과 표준편차와 6세와 7세의 연령에 따른 총점수를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룹과 연령에 따른 총 평균점수를 표로 제시하여 비교하였다.

제재곡 ‘여름방학’의 평가기준에 따른 순차진행, 도약진행, 음정감 부분의 몸 계명과 그림악보 그룹의 평균점수와 표준편차, 유의도는 <표 14>과 같다. 제재곡 ‘여름방학’에서 각 그룹에 따른 점수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몸 계명(M=16.86)이 그림악보(M=14.92) 보다 높으나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즉 이 결과는 제재곡 ‘여름방학’에서는 그룹 간 차이

가 있다고 말 할 수 없다.

<표 14> 제재곡 ‘여름방학’ 음악 성취도 검사의 평균과 표준편차

		몸 계명	그림악보	p
순차진행	평균	5.90	5.08	.126
	표준편차	1.70	1.90	
도약진행	평균	5.71	5.19	.305
	표준편차	1.93	1.52	
음정감	평균	5.24	4.65	.258
	표준편차	1.92	1.57	
총점수	평균	16.86	14.92	.182
	표준편차	5.14	4.64	

제재곡 ‘릿 자로 끝나는 말’의 평가기준에 따른 순차진행, 도약진행, 음정감 부분의 몸 계명과 그림악보 그룹의 평균점수와 표준편차, 유의도는 <표 15>과 같다. 제재곡 ‘릿 자로 끝나는 말’에서 각 그룹에 따른 점수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몸 계명(M=17.43)이 그림악보(M=16.69) 보다 높으나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즉 이 결과는 제재곡 ‘릿 자로 끝나는 말’에서는 그룹 간 차이가 있다고 말 할 수 없다.

<표 15> 제재곡 ‘릿 자로 끝나는 말’ 음악 성취도 검사의 평균과 표준편차

		몸 계명	그림악보	p
순차진행	평균	6.24	5.73	.354
	표준편차	1.89	1.78	
도약진행	평균	5.52	5.81	.650
	표준편차	2.14	2.10	
음정감	평균	5.67	5.15	.337
	표준편차	1.88	1.74	
총점수	평균	17.43	16.69	.644
	표준편차	5.65	5.17	

두 제재곡의 몸 계명과 그림악보 그룹의 총 점수를 비교한 것은 <표 16>와 같다. 각 그룹에 따른 점수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몸 계명(M=34.29)이 그림악보(M=31.61) 보다 높으나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즉 몸 계명과 그림악보는 그룹 간 차이가 있다고 말 할 수 없다.

<표 16> 몸 계명과 그림악보의 총 점수 비교

		몸 계명	그림악보	P
총점수	평균	34.29	31.61	.353
	표준편차	9.97	3.32	

몸 계명 그룹 내에서 6, 7세 연령에 따른 음악 성취도 검사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17>과 같다. 연령에 따른 점수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7세(M=36.55)가 6세(M=31.80) 보다 높으나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즉 6세와 7세는 몸 계명 그룹 안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

<표 17> ‘몸 계명’ 그룹의 연령에 따른 음악 성취도 검사의 평균과 표준편차

		6 세	7 세	p
여름방학	평균	16.10	17.55	.534
	표준편차	5.65	4.80	
릿 자로 끝나는 말	평균	15.70	19.00	.188
	표준편차	6.40	4.63	
총점수	평균	31.80	36.55	.287
	표준편차	11.09	8.72	

그림악보 그룹 내에서 6, 7세 연령에 따른 음악 성취도 검사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18>과 같다. 연령에 따른 점수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7세 연령은 제재곡 ‘여름방학’에서 .001로 유의도 $p < .001$, 제재곡 ‘릿 자로 끝나는 말’에서 .038로 $p < .05$, 총 점수에서 7세(M=36.69)는 6세(M=26.54)와 비교하여 .004로 $p < .01$ 에 각각 유의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유의확률을 살펴본 결과 그림악보 그룹 내에서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8> ‘그림악보’ 그룹의 연령에 따른 음악 성취도 검사의 평균과 표준편차

		6 세	7 세	p
여름방학	평균	11.92	17.92	
	표준편차	2.06	4.59	.001***
릿 자로 끝나는 말	평균	14.62	18.77	
	표준편차	3.95	5.54	.038*
총점수	평균	26.54	36.69	
	표준편차	5.47	9.75	.004**

***p<.001, **p<.01, *p<.05

6세 유아들의 각 그룹에 따른 음악 성취도의 결과는 <표 19>와 같다. 제재곡 ‘여름방학’에서 몸 계명(M=16.10)은 그림악보(M=11.92)와 비교하여 .048로 p<.05에 유의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유의확률을 살펴본 결과 몸 계명 수업방법이 더 효과적이었다.

<표 19> 6세 연령의 각 지도방법에 따른 음악 성취도 검사의 평균과 표준편차

		몸 계명	그림악보	총점수	p
여름방학	평균	16.10	11.92	13.74	
	표준편차	5.65	2.06	4.45	.048*
릿 자로 끝나는 말	평균	15.70	14.61	15.09	
	표준편차	6.40	3.94	5.05	.621
총점수	평균	31.80	26.54	28.83	
	표준편차	11.09	5.47	8.59	.193

*p<.05

7세 유아들의 각 그룹에 따른 음악 성취도의 결과는 <표 20>과 같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7세 유아는 그룹별 차이가 있다고 말 할 수 없다.

<표 20> 7세 연령의 각 지도방법에 따른 음악 성취도 검사의 평균과 표준편차

		몸 계명	그림악보	총점수	p
여름방학	평균	17.55	17.92	17.75	
	표준편차	4.80	4.59	4.59	.846
릿 자료 끝나는 말	평균	19.00	18.77	18.88	
	표준편차	4.63	5.54	5.03	.914
총점수	평균	36.55	36.69	36.63	
	표준편차	8.72	9.75	9.09	.970

6세와 7세의 연령에 따른 총 점수는 <표 21>와 같이 7세(M=36.63)가 6세(M=28.83)보다 높은 것으로 통계적으로 .004로 $p < .01$ 에 유의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유의확률을 살펴본 결과 6세와 7세의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1> 6세와 7세의 연령에 따른 총 점수 비교

		6 세	7 세	p
총점수	평균	28.83	36.63	
	표준편차	8.59	9.09	.004**

** $p < .01$

제재곡 ‘여름방학’에서 <표 22>와 같이 6세 유아의 몸 계명(M=16.10)은 그림악보(M=11.92)와 비교하여 .048로 $p < .05$ 에 유의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유의확률을 살펴본 결과 6세 유아는 제재곡 ‘여름방학’에서 몸 계명 수업방법이 더 효과적이며, 7세 유아는 그룹별 큰 차이가 없다.

제재곡 ‘깃 자로 끝나는 말’은 <표 23>에서 알 수 있듯이 연령에 따른 학습방법에는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표 22> 제재곡 ‘여름방학’의 연령별 지도방법에 따른 평균점수 비교

		몸 계명	그림악보	p
연령	6 세	16.10	11.92	.048*
	7 세	17.55	17.92	.846

* $p < .05$

<표 23> 제재곡 ‘깃 자로 끝나는 말’의 연령별 지도방법에 따른 평균점수 비교

		몸 계명	그림악보	p
연령	6 세	15.70	14.62	.621
	7 세	19.00	18.77	.914

<표 24> 연령별 지도방법에 따른 평균점수 비교

		몸 계명	그림악보	p
연령	6 세	31.80	26.54	.193
	7 세	36.55	36.69	.970

V. 결론 및 제언

1. 요약 및 결론

음악에서 음정은 기본적인 부분이며 또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이러한 음정은 청각능력이 눈에 띄게 발달하는 5~7세 정도에 거의 발달되고, 확립되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지발달에 따른 음악적 성장을 고려한 음감지도의 필요성과 방법을 인식하고 더 효과적인 음감지도 방안을 모색하여 유아 음악 수업에 보탬이 되고자함에 있다. 신체표현과 시각적 표현 중 유아기 때 음정 조절 능력을 길러주는데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과연 어떤 학습방법인가에 대해 알아보고, 연령에 따른 음악성취도에 차이가 있는가, 또한 연령에 따른 효율적인 학습 방법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S유치원 유아 6세 23명, 7세 24명, 전체 대상자 4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6세 유아를 임의로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그림악보, 또 다른 한 그룹은 몸 계명으로 수업하며, 7세 유아도 임의로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그림악보, 또 다른 한 그룹은 몸 계명으로 수업하였다. 두 그룹 모두 본 연구자가 직접 수업을 실시하였으며 12차시의 수업 후 배운 곡 중 유치원 교사의 도움을 받아 아이들이 가장 즐겁게 불렀던 한 곡과 배운 곡 중 가장 난이도가 있었던 2곡의 제작곡을 뽑은 후 음악 성취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자가 제작한 음악 성취도 평가기준에 따라 세 명의 평가자가 채점하였다. 평가기준은 순차진행, 도약진행, 음정감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모두 상, 중, 하의 세 단계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자료는 통계 프로그램에 의해 처리되었다. 음악성취도

검사의 평균과 표준편차, 유의도를 알아보았으며, 그룹별과 연령별 비교는 T-test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 성취도 검사의 채점자간 신뢰도는 순차진행의 크론바흐 알파 계수가 .829, 도약진행의 크론바흐 알파 계수가 .861, 음정감의 크론바흐 알파 계수가 .887였다. 채점자 전체 신뢰도 결과는 .948이라는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이로써 채점자들이 일관성 있게 채점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몸 계명과 그림악보의 각 그룹 평균 점수를 비교해본 결과 각 영역당 몸 계명 그룹이 그림악보 그룹보다 약간 더 높은 평균점수를 보였으나,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즉 몸 계명과 그림악보는 그룹 간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유아 음악수업에서 신체표현과 시각적 표현을 이용한 수업방법은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셋째. 6세와 7세의 연령에 따른 총 점수는 7세(M=36.63)가 6세(M=28.83)보다 높았다. 이것은 유의도 $p < .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으며, 7세 유아가 6세 유아보다 더 우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똑같이 수업을 실시하였을 때 거의 비슷한 시기인 6세, 7세 유아들은 우리가 예상한대로 7세가 6세보다 더 잘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그림악보’ 그룹 내에서의 6세, 7세 연령에 따른 음악 성취도 검사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 본 결과 그림악보 그룹의 7세 연령은 제재곡 ‘여름방학’에서 .001로 유의도 $p < .001$, 제재곡 ‘뒹 자로 끝나는 말’에서 .038로 $p < .05$, 총 점수에서 .004로 $p < .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7세 유아들이 6세 유아들보다 그림악보 수업방법에서 더 우수하였다. 이것은 7세는 시각적 효과를 이용한 수업이 더 효율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섯째, 6세 연령의 각 지도방법에 따른 음악 성취도 검사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본 결과 몸 계명 그룹은 제재곡 ‘여름방학’에서 .048로 유의도 $p < .05$ 에 유의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6세 유아들은 제재곡 ‘여름방학’에서 몸 계명 지도방법이 더 효과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신체표현을 이용한 음악수업에서는 6세와 7세의 차이가 크지 않았으며, 심지어 6세는 제재곡 ‘여름방학’에서 신체표현 방법이 효과적이었다. 그러므로 6세는 신체표현을 이용한 수업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2. 제언 및 후속연구

이와 같은 결론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음악 성취도 검사의 객관적인 평가 도구가 필요하다. 음악에서 가창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의 음악 성취도 검사의 평가가 객관적이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다양한 평가기준을 들 수 있는데 다양한 평가방법을 작성하여 적용해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6세와 7세 유아들에게 실시한 몸 계명과 그림악보 수업에서 몸 계명 그룹이 약간 더 높은 평균점수를 보였으나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몸 계명과 그림악보는 그룹 간 차이가 있다고 말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으나 좀 더 많은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여 유아음악 교육에서 신체표현과 시각적 표현방법 중 각 연령에 따른 효율적인 학습 방법을 알아보는 연구 또한 활발히 진행되어야 하겠다.

셋째, 본 연구의 실험대상이 유아 6세와 7세 모두를 대표한다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할 수는 없으며, 좀 더 많은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여 유아음악 교육에서 신체표현과 시각적 표현방법 중 각 연령에 따른 효율적인 학습 방법을 알아보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유아들의 연령에 따른 더 효과적인 교수-학습방법을 개발하여 나아가서 유아 음악교육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